코로나 4단계 격상에 사찰 방역 '초긴장'

송지희 · 노덕현 기자

7월 25일까지 수도권 4단계
조계종, 사찰 방역지침 공지
조계사, 마지 공양도 스님이
각 사찰들 방역 비상에 돌입

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전국 사찰들이 다시 방역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특히 이번 재확산은 백신 접종율 증가에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데다, 정부가 7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지침을 4단계로 격상한 데 따라 사실상 최고수위 방역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원행)은 7월 9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사찰 방역수칙'을 하달했다. 정부의 4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수도권 사찰은 7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 모든 법회를 비대면으로 전환토록 해 사실상 대면법회를 금지했다. 또 상주대중을 제외한 신도외 외부인의 대중공양을 중단하고 공용 음수대 사용 중단, 공용물품 사용을 자제토록 했다.

이외에는 조계종이 그동안 유지해 왔던 방역지침이 그대로 유지됐다. 사찰 내 마스크 필수 착용과 1일 3회 이상 환기 및 출입인 발열체크와 대장 작성, 개인위생 준수 등이다.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고 사찰 상주대중의 유증상 발생시 즉지 조취를 취하도록 한 방침도 지속된다. 수도권 외 사찰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의 방역지침을 준수토록 했다.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대관도 기간 중 전면 중단된다. 기념관 내 외부 행사는 전면 금지됐고 기자실도 잠정 폐쇄키로 했다.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범해)도 7월 13일 전국 100여 불교대학에 방역지침을 하달했다. 조계종 방역지침에 근거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맞춰 전면 비대면 방식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2021년 학사운영을 한시적으로 조정해 교과 및 신행 등 졸업인정 강의 이수시간을 96시간에서 64시간으로 변경했으며, 온라인으로 진행한 강의에 대해 강의 이수시간으로 인정키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은 첫 사례인 만큼, 사찰들의 긴장감도 최고수위로 치닫고 있다.

서울 조계사는 7월 11일 조계사 운영지침을 발표하고 4단계 기간 중 법당 내 기도를 스님에 한정하고 신도들은 참배만 가능토록 했다. 49재를 비롯한 각종 제사는 직계가족만 참석 가능하며 불단에 공양미를 올리는 연화미 마지공양도 스님들이 대신 올리고 사진을 발송할 계획이다.

대신 기간중 유튜브로 사시불공을 생중계해 신도들의 아쉬움을 달랜다는 방침이다. 기본교육은 비대명 영상강의로 전환되며 불교대학 경전반과 백송대학 및 아카데미 수업은 2주간 휴강한다.

서울 봉은사는 모든 기도 · 법회를 스님 집전만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되, 해당 시간 동안 신도들의 법당 출입을 금하고 비대면으로 추진한다. 템플스테이 운영은 물론 대중 공양간과 바루 운영, 계층법회와 합창단 · 무용 · 풍물 등 일체의 모임도 중단한다. 경내 연회다원 등 찻집은 착석을 금지하고 포장만 가능토록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종교지도자 간담회에 앞서 원행 스님에게 합장인사를 하고 있다.

김부겸 총리, 종교계에 "방역 동참" 요청

7월 15일 종교지도자들 초청
총리공관서 긴급간담회 진행

김부겸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종교계에 적극적인 방역 협조를 요청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7월 1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종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김 총리는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신속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수도권에 가장 강력한 수준의 거리두기 4단계와 추가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종교계 지도자 어른들의 말씀이 필요해 절박한 심정으로 긴급하게 만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위기극복에도 다시 한번 동참해 달라"며 "종교계 지도자들이 나서서 종교활동 현장에서 신도들간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하도록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한때 하루 확진자 2만 명이 나오던 이탈리아가 백신접종 70%를 넘어선 이후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있다며 우리도 더 신속한 백신접종 등 대책들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종교계 지도자들은 서울과 경기지역 감염 확산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시행의 불가피성에 공감을 표한 데 이어 "이번 위기가 조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정부의 방역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송지희 기자

코로나로 신음하는 남방불교에 온정 전달

로터스월드 · 전국비구니회
7월4일부터 7~8일 전달식
캄보디아 · 미얀마 · 라오스
사찰 4곳에 1차로 긴급지원



미얀마 샨마띠다 사찰에서 진행된 전달식.



캄보디아 쁘레아떼위액 사찰 스님들이 지원물품을 받아 가는 모습.

코로나19 장기화에 어려움을 겪는 남방불교 승단에 한국불교계의 자비 온정이 닿았다. 로터스월드와 전국비구니회가 사찰 지원 긴급캠페인 '탁발이 어려워진 이웃 불교국가 스님들의 발심출가를 지켜주세요'를 통해 모연된 후원금을 현지사찰에 전달했다.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와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는 7월 4일과 7~8일 캄보디아와 미얀마, 라오스 등 현지사찰 총 4곳에 1차 긴급 지원을 진행했다. 1차 지원 대상사찰은 라오스 방비엥 지역의 왓타(Wat That) 사원, 미얀마 양곤의 샨마띠다(San Mya Thida) 사원학교, 캄보디아 시엠립의 쁘레앙 뚜르엉(Phresh Angtrung) 사찰과 쁘레아 떼위엑(Preah Teak) 사찰이 선정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이미 1년 넘게 지속된 만큼 각 사원들의 생계문제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로터스월드와 전국비구니회는 캠페인 선포와 동시에 현지사찰들의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가장 지원이 시급한 4개 사찰을 1차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후원금 모금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모연되는 상황과 연동해 우선순위 사찰들에 대한 지원을 순차적으로 이어나가는 방식을 채택했다.

로터스월드에 따르면 라오스 왓타(Wat That) 사원은 방비엥 지역에서 동자승이 가장 많이 생활하고 있는 사찰이며, 캄보디아 쁘레앙 뚜르엉 사찰과 쁘레아 떼위엑 사찰은 시엠립 지역에서 동자승을 비롯해 수많은 스님들이 계율을 지키며 수행에 전념하고 있는 사찰이다. 미얀마 샨마띠다(San Mya Thida) 사원학교는 비구니 스님들이 수행하는 사찰로,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탁발 중단과 군부쿠데타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지원은 전국 사찰과 단체, 불자들이 모연한 금액을 현지 사찰의 사정에 맞게 분배해 로터스월드 현지 지부를 통해 현금으로 전달됐다. 특히 각 지부는 지원금으로 쌀과 라면, 설탕과 식용유, 비누 등을 현지 구매해 사찰에 지원했으며, 필요한 경우 현지 불자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해 전달한 식자재를 스님들을 위해 음식으로 조리해 공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는 남방불교의 탁발 전통과 계율을 최대한 지키기 위한 조치다.

1차 지원에서는 쌀 150포와 라면 120박스, 설탕 100kg와 생필품 등이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사찰의 스님 및 대중 500여 명에게 전달됐다.

캄보디아 쁘레앙 뚜루엉 사찰 주지 스님은 "코로나19로 인해 하루 한 끼의 공양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의 스님들과 불자들의 아낌없는 후원이 사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고마움을 표했다.

한편 사찰 긴급 지원캠페인 '탁발이 어려워진 이웃 불교국가 스님들의 발심출가를 지켜주세요'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남방불교계를 돕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다. 캄보디아와 라오스, 미얀마 등 불교국가 승단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가불자들의 보시 급감과 정부의 이동제한 조치에 따른 탁발 중단 등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캠페인은 기간 특정 없이 지속되며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로터스월드는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의 사찰 뿐 아니라 사찰 인근의 주민들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해당 국가의 코로나19 상황과 사찰의 독자적인 운영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캠페인 종료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02)725-4277, 농협 301-0059-6339-11 예금주 로터스월드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복날, 삼계탕 대신 '채식'으로 건강 챙겨요

불교환경연대, 8월 10일까지
SNS로 복날채식캠페인 진행

불자라면 복날 원기회복 음식으로 '삼계탕' 대신 채소로 만든 '채계장'을 선택해 환경과 건강을 한 번에 챙겨 보면 어떨까.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가 초복인 7월 11일부터 말복인 8월 10일까지 한달간 복날 채식 캠페인을 진행한다. 무더위를 이기기 위해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기간 동안 육류 대신 채식 음식으로 지구를 지키고 생명을 살리자는 취지다.

불교환경연대는 "축산업은 가축이 내뿜는 메탄가스와 가축을 기르기 위한 농장을 만들고 사료를 재배하기 위해 삼림을 파괴하고 기후 위기의 주범으로 꼽힌다"며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채식을 제안해 대중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7월 11일 초복을 시작으로, 7월 21일 중복, 8월 10일 말복에 SNS계정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자신의 SNS계정에 채식 식단을 담은 인증샷과 참여 소감을 #복날채식캠페인, #기후위기, #채식, #불교환경연대 등 해시태그와 함께 게재한 후, 구글 링크(https://forms.gle/tSPCJVrbuYHegTxL6)를 통해 설문지를 작성해 캠페인 참여를 인증하면 된다.

불교환경연대는 캠페인 종료 후 가장 적극적으로 동참한 참여자들을 선정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할 방침이다. 선물은 서울 금선사, 강릉 현덕사, 울산 백련사, 고창 참당암, 창원 성주사 등 녹색사찰 템플스테이 이용권 2매.

캠페인 참여 기간은 8월 10일까지이다. 불교환경연대는 "영양과잉인 현대인들이 이제는 복날에 육류로 만든 보양식을 먹는 대신에, 채소로 가볍게 먹으며 건강을 챙기는 날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캠페인 동참을 당부했다.

송지희 기자

